경향신문 만화부문 당선 마정원

체감온도 높여주는 따뜻한 시선 가질 터

투박한 삶의 결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을 가진 신인 만화가가 등장했다. 200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만화부문에서 당선된 마정원(25)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변방에서 문화의 중심을 기웃거리던 만화를 과감히 장르로 편입시킨 매체의 열린 안목도 반갑거니와, 약관을 조금 넘은 나이임에도 개성 있는 필력을 보이는 당선작 〈과꽃〉 또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입상해 보았지만 이번 당선은 그 기쁨이 남다릅니다. 신춘문예에 만화부문이 생겼다는 정보를 보고선 얼른 펜을 잡아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당선은 기대도 안했어요.

돌이켜보면 마정원 씨의 행보는 지극히 평범했다. 그 시절 누구나 좋아했던 만화잡지 〈아이큐점프〉와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을 탐독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따금 연습장에 뭔가를 그려보긴 했지만 그것은 미숙한 낙서에 불과했다. 잠재했던 만화가의 기질이 깨어난 것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 일찍이 산업디자인을 공부하던 열아홉 고3시절이었다.

"우연한 계기로 대본소 작가의 문하생으로 3개월가량 일하게 되었어요. 밑그림을 지우개로 지우거나 간단한 채색 작업을 맡아 일했는데, 그때 문하생으로 있던 누나들과 친구들의 열정이 몹시 부러웠어요. 만화에 대해 어섯눈을 뜬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마정원 씨의 등단 작품 〈과꽃〉은 흡사 여성의 작품이 아닌가 할 만큼 모녀간 애틋한 풍경을 세목하게 펼쳐낸다. 등굣길 딸의 책가방을 챙겨주는 장면, 과꽃 씨앗을 아이에게 선물하곤 꽃말을 전하는 장면, 놀이공원에 가자고 떼를 쓰는 아이의 볼을 꼬집는 장면 등, 모녀간 아기자기한 풍경들은 과장도 꾸밈도 없는 리얼리즘 만화의 묘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작품의 마지막,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의 환영이었을 뿐이라는 반전이 앞서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다양한 기법으로 펼쳐내는 '익숙한 일상의 낯선 풍경' 들을 면밀히 가려낸 것만으로도 〈과꽃〉은 당선이란 이름에 너끈히 값한다.

"지하철 안에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엄마와 딸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곁에서 함께 흐뭇했죠. 언젠가 그런 모습을 그려야지 싶어 메모를 해두었는데, 그것이 〈과꽃〉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산동네를 치밀하게 묘사한 배경의 완성도를 높게 사주셨는데 사실 산동네를 의식하고 그린 작품은 아니에요. 명륜동과 수유리 산동네에서 제가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경험이 스민 것이겠지요. 취재차 수유리 산동네를 돌아다니다 〈과꽃〉의 배경이 될 만한 아담한 집을 찾아내고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봉제공장이어서 그림을 그리며 혼자 웃기도 했지요."

마정원 씨는 2월이면 학교를 졸업한다. 학기가 끝난 현재 프리랜서로 지인의 작업을 도와가며 개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다음 작품으로 청계천 노점상들의 이야기를 그려볼 것이라 귀띔한다. 만화가란 이름을 얻었으니 이제 지면을 통해 작품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겠다는 기자의 말에 "섣불리 나설 욕심은 없다. 아직은 만화공부를 더 부지런히 할 때"라며 얼른 손사레를 친다.

"이희재 선생님의 만화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만화를 통해 기교가 아닌 정신을 배웠습니다. 〈간판스타〉의 재미와 감동은 놀라울 뿐이에요. 저 역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장르가 만화이니만큼 재미있는 만화를 그릴 겁니다."

자유분방한 겉모습과 달리 마정원 씨는 따뜻한 사람이다. 만화와는 또 달라서 "성격은 괴팍하다"며 웃음 짓는데, 인터뷰 내내 겸손하게 대답하는 그에게 괴팍함이란 어울리지 않는다. 만화라는 정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 할 독한 패기를 일렀음이라면 또 모를까. 독자들이여, 젊은 만화가의 '몹시 따뜻한 만화' 를 관심 갖고 보아주기를.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